

흥미진진...예측불허...WBC 6일 화려한 개막



고척돔서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개최

16개국 참여...ML 올스타 출신 178명
A조 한국, 이스라엘과 6일 첫 격돌
일본 등 B조, 7~11일 도쿄돔서
A·B조 1,2위팀 12~16일 일본서 2R

A조	B조	C조	D조
서울 고척 스카이돔	일본	미국	멕시코
이스라엘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이탈리아
대만	중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아구의 세계화’를 꾀하며 출범한 월드 베이스볼클래식(WBC)의 네 번째 대회가 오는 6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프로 선수들까지 참가하는 야구 국가대항전 WBC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주도로 2006년 3월에 1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첫걸음을 뒀다.
2009년 2회 대회 이후에는 4년 주기로 열려 올해 네 번째 대회를 맞는다.
2013년 대회부터는 참가국을 28개국으로 늘리면서 지역 예선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2개 나라는 본선에 직행하고, 하위 4개국과 새로 참가한 12개국 등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러 각 조 1위가 본선에 합류한다.
1, 2회 대회에서는 모두 일본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3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이 결승에서 푸에르토리코를 꺾고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2006년 4강에 오르고, 2009년에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야구의

강호로 발돋움했다. 2009년에는 당시 희한한 규정 탓에 결승 포함, 다섯 차례나 격돌한 일본에 아쉽게 우승을 내줬다.
내진김에 우승까지 해보자고 달려들었던 2013년에는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이제 한국은 1, 2회 대회의 영광을 이끈 김인식 감독에게 다시 지휘봉을 맡기고 명예회복을 베풀는다.
올해 대회에는 이스라엘, 호주, 콜롬비아, 멕시코가 예선을 통해 본선에 가세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대만과 A조에 속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1라운드를 치른다. WBC 경기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오는 6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7일 네덜란드, 9일 대만과 차례로 대결한다.
B조에 속한 숙적 일본은 쿠바, 중국, 호주와 7일부터 11일까지 도쿄돔에서 1라운드를 벌인다.
A, B조 상위 두 팀씩 총 4개 팀이 12~

16일 도쿄돔에서 본선 2라운드를 치른다.
미국, 캐나다,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는 9~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말린스 파크에서 C조 1라운드 경기를 한다.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D조 1라운드 일전을 벌인다.
C조와 D조 상위 두 팀씩 4개 팀은 14~1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의 펫코 파크에서 2라운드를 소화한다. 여기서 이기는 팀이 A·B조 2라운드 1, 2위 팀과 결승 티켓을 놓고 다툰다.
1, 2라운드 모두 각 조에 편성된 팀과 한 번씩 맞붙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진행된다. 말뚝을 부른 일종의 패자부활전 방식은 사라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투수 예비 엔트리를 제출하고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최대 2명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각국은 갈수록 정예 멤버로 대표팀을 꾸리려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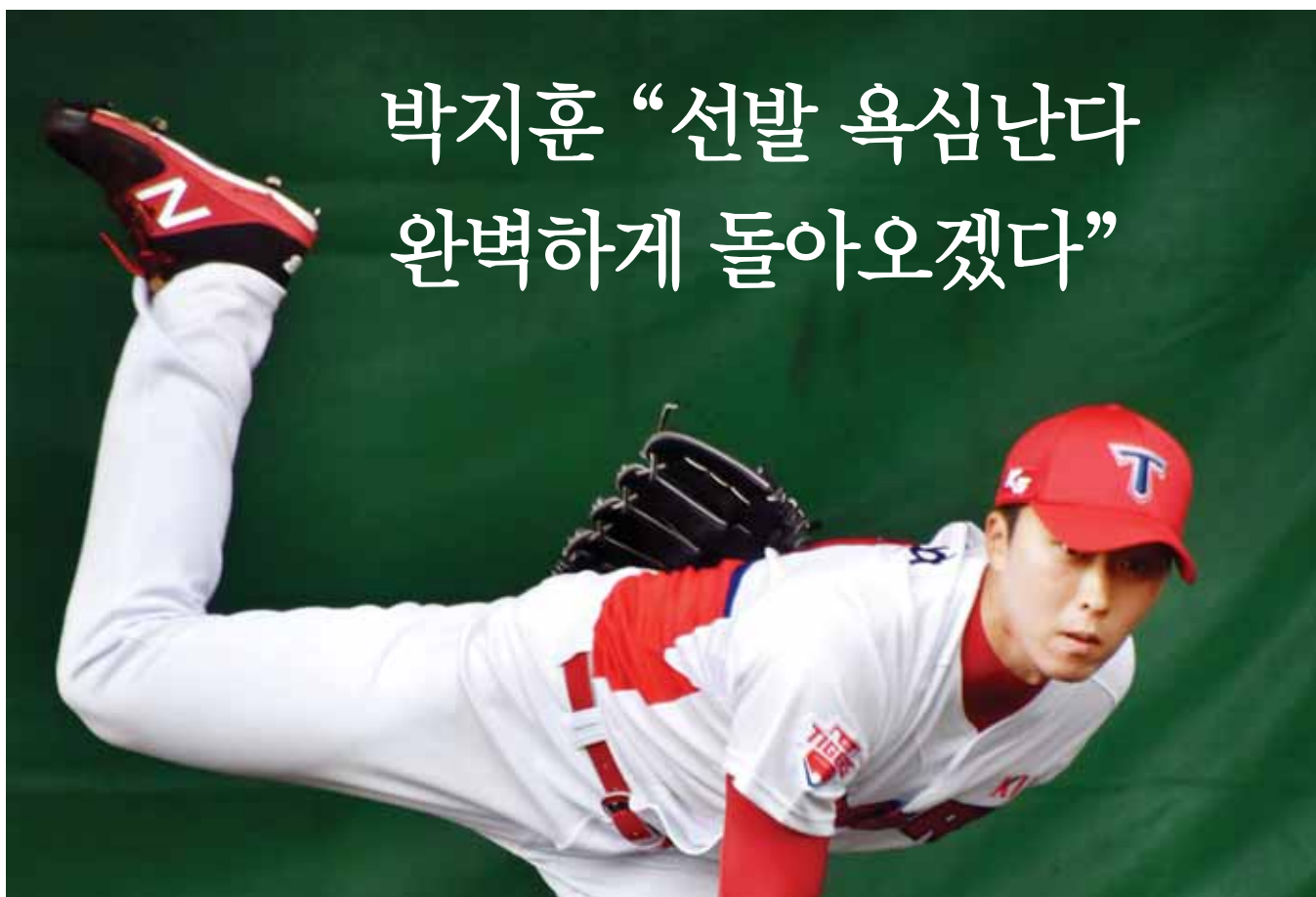


1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 A조 감독 기자회견에서 각국 감독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리 웨인스타인 이스라엘 감독, 헨슬리 올렌 네덜란드 감독, 귀타이위안 대만 감독, 김인식 한국 감독. /연합뉴스

있다.
WBC 조직위원회가 이번 대회 16개 참가국 최종 엔트리와 투수 예비 엔트리를 발표했을 때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이 178명이나 됐다.
다만 한국 대표팀에는 마무리 투수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유일한 메이저리거다.
오승환은 내야수 김태균(한화 이글스)과 함께 네 차례 WBC 대회에 모두 출전

하는 선수로 이름 올랐다. WBC는 투구 수 제한 등 일반적인 국제대회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
올해는 1, 2라운드에서 승률이 같은 팀이 나오면 단판 승부로 순위를 가르는 ‘타이브레이크 게임’이 신설됐다.
연장전 제도도 손봐 2013년에는 13회부터 적용한 승부처기를 올해에는 11회부터 한다. 연장 10회까지 승패를 가리지 못하면 연장 11회부터 주자를 1, 2루에 놓고 공

격을 시작한다.
선수 보호를 위한 투구 수와 등판 제한 규정은 2013년과 같다. 투수가 한 경기에서 던질 수 있는 최대 투구 수는 1라운드 65개이며 2라운드는 80개, 4강부터는 95개다.
한 경기에서 50개 이상 공을 던진 투수는 나흘을, 30~49개를 던지거나 이를 연속 등판하면 하루를 무조건 쉬어야 한다. /연합뉴스



박지훈 “선발 욕심난다 완벽하게 돌아오겠다”

KIA 타이거즈의 박지훈이 스프링 캠프가 마려된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볼펜 피칭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급할수록 돌아가겠다’는 KIA 투수 박지훈이다.
단국대 출신의 박지훈은 2012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고 KIA 유니폼을 입은 선수다.
입단 첫해인 2012년 그는 50경기에 나와 3.38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3패 2세이브 10홀드를 기록하면서 KIA 불펜의 한 축으로 급부상했다. 포커 페이스의 그는 위력적인 포크볼로 특별한 신인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프로 2년 차 성적은 좋지 못했다. 35경기 나와 10.92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2승 1패 1세이브 4홀드를 기록했다. 팔꿈치 통증에 시달렸던 그는 2014년은 아예 시즌 출발도 하지 못했다. 팔꿈치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하차한 그는 재활 끝에 결국 2014년 5월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 후 박지훈은 합평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2년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겨울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그

군 제대하니 운동하기 편해
연습경기 호투는 의미없어
서둘러 100% 몸 만들것

는 이번 스프링캠프를 통해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손조롭게 박지훈의 복귀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박지훈은 지난 28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진행된 넥센 히어로즈와의 연습경기에 등판해 1이닝을 소화했다. 이번 캠프 두 번째 실전 등판에서 그는 1이닝 1볼넷 2탈삼진을 기록했다. 첫 타자 김태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박지훈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스탠딩 삼진과 1루 땅볼로 아웃 카운트 3개를 만들었다.
직구 최고구속은 145km를 찍었고 특유의 포크볼도 위력적이었다.
그럼에도 박지훈은 경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완벽하게 복귀하는 게 박지훈의 목표이고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익근무를 하는 동안 합평 캘린저스 필드에서 출퇴근하면서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왔다. 공을 놓지 않고 준비를 해왔지만 수술했던 팔꿈치 부위가 아직은 조심스

럽다.
박지훈은 “지금 게임이 중요한 것지는 않다. 게임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고 팔 상태가 완벽해져서 게임을 해야 한다”며 “아직은 팔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괜찮다가도 불편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당장 무리해서 하지 않고 100%의 몸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마운드를 떠나있던 지난 2년. 그는 관람자가 되어 TV 화면을 통해서 야구를 지켜봤다. “저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라는 예타는 마음으로 2년을 보냈고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그리웠던 곳이지만, 마운드에 대한 마음은 급하지만 천천히 완벽하게 돌아가겠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박지훈은 “그동안에도 합평에서 운동하기는 했지만 지금 캠프에서 운동하는 것과는 다르다. 군대 문제로 해결이 됐고 마음 놓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며 “지난 경험이 경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투수로서 당연히 선발 욕심은 있지만 일단은 완벽하게 몸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키나와 클·사진=김여울기자

공에 맞은 김진우·고효준 “타자 마음 알겠네”

불같은 강속구와 폭포수 커브로 ‘괴물’로 통하는 김진우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또 다른 의미의 ‘괴물’이 됐다.
그는 지난 16일 니혼햄과의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2구 만에 투수 갑스타구에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고 쓰러졌다. 검진결과 단순 타박 진단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김진우는 “순식간에 공이 날아와서 피할 틈이 없었다. 타자들의 심경을 알겠더라”며 “이들은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룸메이트인 (김)현준이가 얼음찜질을 해주느라 고생했다”고 웃었다.
보는 이들에게도 가슴 찡찡했던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괴물’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김광수는 “공 맞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짱하더라. 명도 별로 안 들고 금방 아무렇지 않게 공을 던지더라”면서 혀를 내둘렀다.
김광수의 말대로 김진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펜 피칭에서 위력적인 공을

던지면서 ‘괴물’ 인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라쿠텐전에서 역시 타자가 친 타구에 왼 종아리 부위를 맞은 고효준도 ‘타자들의 심경’을 제대로 느꼈다.
고효준은 “명이 많이 들었다가 빠졌다. 아찔했던 순간인데 요즘은 타구 반발력도 더 좋아지기도 했고 피할 수가 없었다”고 부상 당시를 회상했다.
사(死)구에 고생하는 타자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게 됐다는 고효준은 “옆에서 (김)추찬이 형이 우리는 맞아도 금방 뛰어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며 웃었다.
통산 104개의 몸에 맞는 볼을 기록하고 있는 이범호는 “재들은 몰라”라는 말로 타자들의 고통을 이야기했다.
이범호는 “정말 아파. 투수들은 모를 거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냥 아프다”며 공에 맞는 심경을 이야기했다.
다행히 김진우와 고효준 모두 ‘이상 무라서’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부상 소동이었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타이거즈-기아차 ‘타이완 리틀 야구 클리닉’ 성료

KIA 타이거즈가 기아자동차와 함께 개최한 타이완 리틀 야구 클리닉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타이완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 퓨처스 선수단은 지난달 28일 카오슝 청청후구장에서 리틀 야구 선수 70명을 초청해 클리닉 행사를 열었다.
카오슝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 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리틀 야구단은 KIA 선수단의 지도 아래 캐치볼과 투구, 타격, 수비 훈련 등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정희열 퓨처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광정철, 윤정우, 오준혁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어린이 선수들에게 기본기를 꼼꼼하게 전수했다.
또 KIA 구단과 기아자동차가 함께 벌이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타이거즈 리브루게다’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배트와 글러브, 야구공, 사인볼 등 6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기아자동차 타이완 판매 대리점인 ‘사인바’도 한 달 판매 수익의 일부를 타이완 유소년 야구 활성화를 위해 기부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타이완 카오슝 청청후구장에서 현지 리틀야구 선수들을 초청해 클리닉을 열고,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했다.
클리닉에 참여한 양성웨이 군(12)은 “체계적인 기술 훈련을 받고 야구 장비도 선물로 받게 돼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했고, 우이쩐(12) 군도 “KIA 타이거즈 선수들처럼 멋진 프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A 선수단도 뿌듯함을 전했다.
정희열 퓨처스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대만 유소년 야구 클리닉을 진행하게 매

우 뜻 깊다”며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한국-타이완 야구의 왕성한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야수 오준혁도 “어린이 선수들에게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야구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재미있게 훈련하라고 조언해줬다”며 “타이완 유소년 선수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느낀 시간이었다. 짧았지만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